

교환학생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박 OO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미네소타
파견대학	Concord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9~2020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전반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제가 파견을 다녀온 <i>Concordia University</i> 는 미네소타 트윈시티 중 하나인 세인트폴에 위치한 작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작아서 친구를 사귀기 굉장히 쉽고 도움을 받기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좋은 편입니다. 학교,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해서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보냈습니다. 학교 주변에 타겟, <i>Cup food</i> , 달러트리 (다이소) 같은 곳이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기숙사와 학교건물이 아주 가까워서 이동이 편리합니다.

2019-2 학기
수업

Auditing –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따라가기 힘들지 않았는데 진도가 나갈수록 아주 많이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매 챕터마다 케이스 스터디와 퀴즈, 복습과제가 3~4개정도 있는데 전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책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과제를 위해서 따로 액세스코드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비쌉니다. 액세스코드를 구입하지 않으면 과제를 할 수 없고 과제비중이 정말 높아서 과제를 하지 않으면 수업패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중간, 기말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챕터당 한번씩 총 3번을 봅니다. 초반에는 이론위주로 가지만 나중에는 실전 적용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하고 자기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저처럼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면 굳이 듣지 마세요..

Managing talent, change & negotiation –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이론위주의 수업이기는 하지만, 지루하지않게 게임도 자주하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담이나 케이스 등을 공부합니다. 시험의 양은 많은 편 이지만 시험전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해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입력이 된 이후에 정정을 해주시지는 않지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를 내주시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험에 있는 에세이 문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Principles of marketing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수업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교수님도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처음 정해진 조 그대로 마지막까지 수업도중 조별활동을 같이 해야 합니다. 주로 조별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 찾기입니다. 중간고사는 따로 없었고 매 챕터마다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대체로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배운것들을 전부 포함해야 해서 최소 12~15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학기 초 중반에 시작할 수 없으니 레포트 작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교환학생 & 인터네셔널학생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따로 신청 할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수강신청 됩니다. 미국 문화를 가볍게 배우는 수업이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2020-1 학기수업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이론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편 입니다. 보통 수업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노트북에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무조건 손으로 필기해야 했고 피피티를 공유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반 친구에게 필기를 공유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조별 발표가 두 번 있습니다. Corporate Finance I – 경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면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매 챕터마다 과제와 시험이 있는데, 초반에는 이론 위주라서 어렵지 않지만 갈수록 계산문제 비율이 많아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같이 듣는 친구들이나 먼저 들었던 친구들이 이 수업은 숙제가 너무 많고 공부 할 양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던 수업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두 명에서 하는 팀 발표가 있습니다. Drug Education – 마약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서 재미있었던 수업입니다. 수업이 많이 어렵지 않고, 어려운 이론보다는 토론이나 자기 의견,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듣기 좋은 수업입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레포트를 약 5 번 정도 써야 합니다. 레포트 발표도 하고, 수업 자체가 참여형 수업이라서 재미있었습니다. Managing Teams, Communication & Project – 주로 이론위주 수업입니다. 생산관리에서 배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 조를 짜서 학기 내내 조별 과제를 진행해야 하고, 거의 매주 발표가 있습니다. 레포트도 4~5 번 정도 작성해야 합니다. 엄청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싫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교투어, 체육대회등을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에게 스테이트페어 무료입장권을 제공해서 무료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은 꼭 참여해야 하고, 학교 다니면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과 블랙보드 이용방법을 알려줍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해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SS에서도 전반적인 생활과 국제학생 수강신청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적표 발송은 학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따로 신청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저는 가을학기 성적표도착이 3개월 정도가 걸려서, 봄 학기에는 성적표 원본을 따로 요청해서 한국에 가져와서 제가 발송했습니다. 만약 4학년 2학기 성적을 인정받으시는 경우에는 저처럼 원본성적표를 받아서 한국에 가지고 온 뒤에 개인적으로 국제교류처에 발송하시는 게 더욱 안전할 것 같아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9월초에 첫 학기를 시작 할 텐데, 한국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한 초가을의 날씨입니다. 겨울내내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아주 춥습니다. 상하의 히트텍과 롱패딩을 꼭 가져가시길 추천합니다. 실내는 아주 따뜻하고 건물을 옮길때도 지하통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꺼운옷을 많이 챙기기 보다는 가볍고 편한옷들로 챙기시는걸 추천합니다.

안전	미네소타는 치안이 좋은 지역중에 하나이고 학교가 외진 곳에 있지는 않아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미네소타는 특히 사람들이 친절함 것으로 유명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숙소() 기타() Holst Hall 4인실을 사용했고 거실 1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조리가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4인실에는 4개의방이있습니다. 통금시간은 따로 없지만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있지 않아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다같이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숙사입구,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입구, 그리고 본인의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 전부 학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증은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개별이용(O) 홈스테이() 외부식당(O) 직접요리(O) 기타() 첫 학기에는 밀 플랜을 신청하지 않았고 직접 요리해먹거나 학교식당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한인 마트가 있고 타겟, 아시안 마트도 있어서 재료구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번 요리하기가 번거로워서 봄학기에는 밀 플랜을 신청했습니다.
교통	통학은 기숙사와 건물이 가까워서 도보로 하면 됩니다(2분정도밖에안걸려요) 그리고 이동할때는 보통 Light rail 이용하거나 우버를 타면되는데, 보통 친구에게 부탁하면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Light rail도 나름대로 편하고 나쁘지 않지만, 차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낮에 타도 마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비용내역등)
항공료	인천- 샌프란시스코 왕복권 구매 후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항공권 별도구매	약 120 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시 Tuition 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밀플랜 총\$1,310 (미신청\$300, 하프밀플랜\$1,010) 기숙사 4 인실\$7,180 internatianl student services fee - \$2,400 총\$10,890
보험료	자매 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비용을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따로 지정된 보험은 없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보험을 들면 됩니다. 약 30 만원

숙소		
식비		
교통비		
책값		약 40 만원
기타 1		
기타 2		
합계		2,000 만원이상

5. 출국 전 준비사항

학교서점에서 판매하는옷이 세일을 자주해서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종류는 꼭 필요한 것만 2~3개 정도 챙기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 다이소와 비슷한 달러트리가 있어서 꼭 한국에서 면봉, 테이프, 필기구 외 다이소에서 많이 구입하는 제품을 사올 필요는 없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도 걸어서 갈 수 있는 타겟에서 살 수 있으니 작은 샘플을 들고가서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타겟에 김치가 있기는 한데 찾기가 힘들고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컴푸드에 팔고 있으니 당장 필요하다면 컴푸드에서 작은 사이즈로 사면 되고, 한인 마트에 가면 큰 사이즈로 파니까 그거 사면 됩니다. 웬만한건 다 살수 있어서 갈 때부터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가면 돌아 올 때 많이 힘들어요.

6. 본인소감및평가

4학년때 모험처럼 가게 된 교환학생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일 년 동안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4학년 때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기도 많이 말리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녀오니 배운 것도 정말 많고 손에 꼽을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뿌듯합니다. 생각보다 영어로 수업 듣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영어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성격도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 장이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진행한 크로스컷 쇼



Thanks giving 기념바구니 만들기 이벤트



대표적인 미네소타 조형물인 Spoon bridge and cherry



관광지로 유명한 미네하하폭포



세인트폴 대성당



뉴욕타임스퀘어